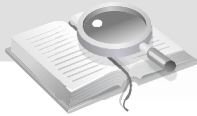


| 국내 · 외 학술활동 |

## 감자 관련 러시아 국제 전시회 참관 및 유통 현황 조사

최 희 돈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가공유통연구본부

Potato Russia 2007이 2007년 8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All-Russian Exhibition Center와 Lorkh VNIKH fields에서 개최되었다. 감자관련 연구의 최근 동향 조사 및 감자관련 가공제품의 정보 수집을 위해 ARPC 감자 기획과제의 총괄 연구책임자인 강원대학교의 임학태 교수와 총괄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인 Potato Valley의 임직원들과 참관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지역의 감자 품종과 가공제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Potato Valley에서 참가신청한 Field demonstration과 Potato show에 참여하여 Potato valley의 신품종을 홍보하였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형 식품마켓인 AwaH를 방문하여 감자 가공제품과 유통 관련 정보 및 기타 가공제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에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I. Potato Russia 2007 개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 2위의 감자 생산국이며서 가장 많은 양의 감자를 소비하는 국가로 감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주요 작물이다. 이번에 개

최된 Potato Russia 2007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개최한 감자 관련 국제 전시회로서 농림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열띤 취재를 할 만큼 러시아에서 크게 관심을 나타낸 전시회였다. 행사는 감자 대소비국 답게 'In Russia, the potato is second only to bread'라는 표어로 3일간 진행되었다.

#### 1. Exhibition

APH Group, Agril Control, Arvalis 등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에서 약 160여 감자 생산 및 가공업체들이 참여하여 All-Russian Exhibition Center에서 8.21~8.22 2일간 자신들의 감자 품종을 소개하고 가공제품을 홍보하면서 감자 재배회사 및 농민들과 품종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Potato valley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관람객과 전시 참여업체에 나누어주면서 23일 열리는 field demonstration에서의 홍보 부스를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Potato Valley 임직원과 함께 전시장

러시아와 유럽지역은 감자를 주식개념으로 그 자체로 요리해서 먹기 때문에 감자 가공제품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으깬감자, 박피감자, 소금용액에 담긴 익은 감자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채취한 감자에 묻은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brush type의 세척기와 세척한 감자를 크기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이를 여러 가지 형태의 포장용기로 포장하는 포장기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시선을 모았고 참여업체인 Potato valley에서도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제품 형태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전시장에 전시된 감자 가공제품들



감자 세척, 크기별 분류, 포장 장치 및 소포장된 감자

## 2. International Congress

다음의 9가지 분야에 대한 session으로 2일간 (8.21~8.22) 진행되었으나 가공분야의 내용이 적어 참여하지는 않았다. 주로 감자 재배에 중점을 두어 재배기술, 감염 예방, 씨감자 생산 등에 관한 세미나가 많이 발표되었고 포스터 발표도 병행되었다.

-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 Agronomy
- Technology
- Product certification
- Seed potatoes
- Advances in biotechnology
- Quality of processing and ware
- Advances in breeding
- Crop protection

## 3. Field demonstration

‘Field demonstration’이란 자사의 감자품종을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이른 봄에 주최측에 감자를 미리 보내어 field에 심도록 한 후 행사기간 중 직접 캐어 수확량과 외관 상태 등을 비교하면서 홍보하도록 하는 전시방법이다. 러시아 국립 감자연구소의 재배농장인 Lorkh VNIKH fields의 일부(40 hectares)에 약 60개의 참여업체들이 각각의 부스와 field를 할당받아 재배한 감자를 직접 수확하여 홍보하였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많은 방송국과 언론사의 열띤 취재가 이루어져 Field demonstration이 이번 ‘전시회의 꽃’이었다.



Potato valley 홍보 부스



Potato valley의 감자밭 및 직접 수확한 고구벨리

Potato valley는 개발 품종(구이벨리, 보라벨리, 고구벨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해온 판넬을 부스에 설치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확한 품종들을 홍보하였으며, 많은 관람객과 방송국, 언론사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유색감자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특히 보라색을 나타내는 보라벨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 지역에서는 보라색 유색감자가 산업적인 재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판단된다. 또한 보라벨리, 고구벨리, 주스벨리 등의 품종이 기타 품종과 달리 샐러드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신기해하였다. 이와 같은 관람객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주최측으로부터 보라벨리가 Potato Russia 2007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Potato valley의 홍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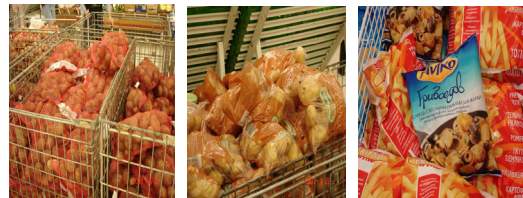
Potato Russia 2007 Award에서 수상한 대상 표창과 메달

## II. 대형 식품마켓 방문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자 및 가공제품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대형 식품마켓인 AwaH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척되지 않은 채 망에 포장되어 유통되는 제품과 깨끗이 세척하고 크기별로 분류하여 종이 포장지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며, 프렌치프라이와 치즈와 함께 으깨어져 냉동으로 유통되는 가공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대형 식품마켓인 AwaH의 외관 및 내부



유통되고 있는 감자 및 가공제품